

'예비신혼부부 예물 구매 찬스'

롯데백 전주점, '익산 보석 주얼리 페어' 20일부터 익산보석박물관서 볼거리·재미 등 선사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조환섭)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6층 이벤트 행사장에서 세계유산 보석도시 익산시 익산보석박물관과 상생 협약하여 국내 최초로 '익산 보석·주얼리 Fair'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익산 보석박물관의 12개 탄생석 원석 그대로 가져와 전시, 고가의 희귀보석을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체험형 보석존을 구성했다.

또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무의 팔찌를 만들 수 있는 팔찌공예와 원광대 보석공예학과 학생들의 작품전시 및 개인체결 등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예비 부

부와 연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기간 중 보석/주얼리 구매고객 100명에게는 '익산 박물관' 관람권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잡화 김대원Floor장은 "본격적인 웨딩 시즌에 맞춰 보석의 도시 익산시의 최초로 기획한 보석·주얼리 행사인 만큼 지역상생 문화 이벤트로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를 고객께 선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결혼식을 앞둔 실속과 예비 부부들에게는 다양하고 합리적인 예물을 구매할 수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수호 기자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6층 이벤트 행사장에서 '익산 보석·주얼리 Fair'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 반딧불에너지 방문... 건의사항 청취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전형구)은 17일 반딧불에너지(대표 김석곤)를 방문하여 제조 현장 및 품질관리 현황 등을 둘러본 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2009년 설립한 반딧불에너지는 2011년 3월부터 MAS 계약을 추진했다.

또한 친환경적인 태양광가로등으로 최근 3년간 약 8억 5천여 만원의 공공 조달 실적을 일궈낸 업체다.

전형구 청장은 "도내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발판으로 성장하여 지역 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5부터 27일까지 고양 KINTEX에서 열리는 '2018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KOPPEX)'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수호 기자

'JB희망의 공부방 오픈'

익산 패밀리아동센터에서, 학습·보호·문화체험 등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16일 익산시 남중동에 위치한 패밀리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69호' 오픈식을 했다.

오픈식에는 전북은행 이정영 부행장, 익산시 김철모 부시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종화 부회장, 익산시지역아동센터연합 김순옥 회장, 패밀리아동센터 강승용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패밀리아동센터는 주변일대 아동들에게 학습, 보호, 문화체험 등 다양한 교육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오래되어 손상된 장판과 책상, 어두운 내부조명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전북은행에서는 장판을 교체하고, 책상, 의자, 책장, LED전등, 블라인드 등을 새롭게 지원,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동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부방을 조성했다.

특히, 전북은행 익산지점(지점장 김병조)에서 향후 정기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해 나눔을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아동들의 희망멘토가 되어주기로 약속했다.

전북은행 이정영 부행장은 "아동들이 방과 후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역아동센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꾸준히 JB희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16일 익산시 남중동에 위치한 패밀리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69호' 오픈식을 했다.

의 공부방 사업을 전개하며 따뜻한 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수호 기자



전북농협, 양계 농가 돕기 계란 소비 촉진 나눔 행사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16일 익산시 삼기면에서 열린 '풍년 농사 지원 전국 Start-up' 발대식 참가자를 대상으로 '양계 농가 돕기 위한 계란 소비 촉진 나눔 행사'를 했다.

유재도 본부장은 "최근 사육수수 증가로 계란 값이 폭락하면서 위기에 놓인 양계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구내

식당에서 매주 수요일을 계란요리 먹는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밤 농협 임직원 1인당 계란 3판 이상 팔아주기 운동 등을 하며, 계란 소비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수호 기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바우처1구역 서신아이파크 e편한세상'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서신동 e편한세상, 중소기업 장기근로자 주택우선 공급

단, 부동산업이나 일반유통 주점업, 무도유회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캄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신청 불가능하다.

이번 특별공급의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으로서, 주택 위치는 전주시 서신동 68번지 일원이고, 우선공급 주택 세대수는 전용면적 34㎡형 5세대, 59㎡A형 3세대, 59㎡B형 10세

대, 59㎡C형 6세대, 59㎡D형 4세대, 84㎡A형 18세대, 84㎡B형 30세대, 84㎡C형 5세대로 총81세대다. (국가유공자, 보호보상대상자, 장애인 등 포함)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전라북도 거주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청약지속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200만원)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수호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